

추억 속 '사이월드' 돌아온다 토종 SNS 부활 신호탄 되나

사이커뮤니케이션즈

3D 기반 새로운 사이월드 개발

카카오 친구연결 통해 반등 모색

토종 SNS의 조상 격인 사이월드가 내년 또 한 번 부활을 준비 중이다.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의 압도적인 성장 속에서, 토종 SNS들이 생존 전략을 모색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내 SNS 시장은 글로벌 SNS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국내 SNS 사용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SNS는 숏폼(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와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유튜브는 월간 사용 시간이 18억 시간에 달하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또한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작년 대비 42.1% 성장률을 기록, 네이버를 제치



사이커뮤니케이션즈(이하 사이컴즈)가 기존 사이월드 소유 법인인 사이월드제트로부터 사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커뮤니케이션즈

고 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주요 SNS들은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1년간 MAU가 지난해 10월 대비 539만명에서 336만명으로 43%나 감소했으며, 네이버도 최근 1년간 사용자 이용 시간이 9.7%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사이월드와 카카오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사이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기존 사이월드자산을 사이월드제트로부터 인수하고, AI와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한 3D 기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연결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와의 연결을 재활성화하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카카오톡 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쉽지 않다. 해외 플랫폼들이 숏폼 콘텐츠, AI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토종 SNS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 동력이 저하되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케미칼, 순환 재활용 플라스틱 상용화

국순당 프리미엄 전통주 용기 적용

SK케미칼과 국순당이 순환 재활용 소재를 기반으로 주류 용기를 개발, 상용화했다.

SK케미칼은 국순당의 프리미엄 전통주 용기에 순환 재활용 페트(CR-PET, Circular Recycle PET)를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중합 기술 기반 순환 재활용 페트(PET) 소재가 전통주 용기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케미칼과 국순당은 전통주 용기에 사용하던 석유화학 기반 페트(PE T)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7월 MOU를 맺고 순환 재활용 페트(PET) 소재를 적용한 용기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양사는 전통주 용기 개발을 위해 순환 재활용 플라스틱인 ‘스카이펫(SKYPET) CR’을 소재로 선정하고 사출 성형성, 내열성, 내충격성 등 주류 용기의 제조와 유통에 필요한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시 적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용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전통주의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용기를 개발해냈다.



순환 재활용 페트(CR PET)를 적용한 제품 ‘옛날 막걸리’ /SK케미칼

SK케미칼의 순환 재활용 페트 ‘스카이펫CR’는 페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되돌리는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로, 페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지만 석유 기반 PET 소재와 동일한 품질과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또 해중합 방식의 순환 재활용 기술은 페플라스틱을 분해한 원료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SK케미칼과 국순당이 함께 개발한 용기는 프리미엄 전통주 ‘옛날 막걸리’ 제품에 적용됐다. 국순당은 수출 제품군 용기에도 ‘스카이펫(SKYPET) CR’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금융꿀팁”에서 달라진 추심제도 확인하세요

정확한 채무정보 확인 방법 등 소개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 등을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 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

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대 이동통신사(SK·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 기업 기념비 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 제막식

SK이노, 석유류 공급 등 ‘에너지 주권’ 기여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기업 성장 “대한민국 산업발전 선두에 설 것”

SK이노베이션이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계에 석유류와 같은 에너지는 물론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단지 출범 60주년을 맞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호 입주기업 기념비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로 시작으로 산업수도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이자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는 울산공업센터부지에 국내 최초의 정유

공장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에너지 주권 확보에 초석을 놓았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972년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공장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을 가동하고 1991년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제조시설, 파라자일렌(PX) 제조 시설을 포함한 9개의 신규공장을 준공하며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국내 최초 정유공장으로 시작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약 250만평(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부지에서 단일 석유화학공장 기준 원유정제 생산능력(Capa) 세계 2위 규모인 하루 8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것”이라는 고(故) 최충현 SK 선대 회장의 경영철학을 답아 지난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1020억원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하고 울산시에 기부 채납한 후 장기축제를 비롯한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끊임 없이 이어왔다.

울산 산업의 역사와 경제 발전을 함께한 SK이노베이션은 울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까지 모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에 따라 회사의 모태인 울산의 미래와 사회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플랫폼인 울산포럼을 3회째 지속하며 지역 문제 해법과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준길 SK 울산CLX 총괄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선두에 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감원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신속 조사”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경찰수사 지원

지난 8월 15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수백건 달했던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의 광고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

바일앱 등에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